



삶과 죽음의 빛깔

최종욱

광주광역시 우치공원관리사업소
수의사/동물결림니스트
lovenat@hanmail.net



죽음에 색깔이 있을까? 역시 같지만 수많은 (동물들의) 죽음을 지켜 보아 온 나로서는 분명한 색깔을 느끼기도 하고, 아마 그걸로 죽음을 충분히 예감 할 수 있는 것도 같다.

생에서 죽음으로 넘어가는 과정 중에는 이미 내부에 많은 변화들이 있기 마련이며, 내 마음 속에도 체념 같은 공허한 감정들이 물밀듯 다가오기도 한다.

그렇게 하나하나 수많은 죽음에 직면하다보면 역설적이게도 죽음을 통해서 분명한 삶의 빛깔도 보게 된다. 칙칙한 죽음의 색에 비하면 삶의 색채는 그야말로 휘황찬란한 무지개 색이라고 할 수 있다.

이번에, 동물원에 붙어있는 식물원에서 갑자기 새가 한 마리 땅에 떨어져 있다가 가보니 부화 된지 1주일도 안 될 성 싶은 새끼 새가 땅바닥에서 버둥거리고 있었다.

차라리 안 보면 모를까 보고는 그냥 넘어 갈 수가 없어 그것을 소중히 두 손에 안고 내려왔다. 그러나 이런 어린 생명들을 대할수록 부담감이 커진다. 왜냐면 이렇게 구조



결국 또 그렇게 가너린 한 죽음과 마주설 수밖에 없었다.

항상 죽음을 직면할 땐 수의사란 직업 탓인지 오히려 더 담담해 지려 노력한다. 그리고 누가 또 나처럼 죽음에 대한 부담을 가질까봐 얼른 내 손에서 먼저 처리하려고 더 덤비게 된다. 그리고 문던지, 태우던지 혹은 연구소에 가서 부검을 하든지, 겨우 어떻게 안 보이게 처리하고 나서야 비로소 마음이

조금 안정이 된다. 모르는 남들은 그런 나를 참 무정하고 침착하다고들 하지만, 죽음을 직면한 순간 내 낮빛마저 마치 그 죽음의 빛깔마냥 창백하게 질려있는 걸 알아 체는 이는 주위에 드물다.



된 작은 동물 중에는 살아나는 것이 극히 드물어 또 하나의 죽음과 직면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불안한 예감에 굉장히 두렵기 때문이다. 다행히 이 새는 먹을 것을 달라고 입을 짹짹 벌리는 폼이 그래도 삶의 의지가 강한 것 같았다(보통은 두려움 때문에 이런 최소한의 동작조차 못하고 간다).

늘 그렇듯 '그래 한 번 해 보자.' 결심하고 그 순간부터 열심히 사무실 주변의 파리들을 잡아다 먹이기 시작했다. 그 귀찮던 파리조차 그럴 땐 꼭 보이지 않았다. 정말 책에서 본 것처럼 이 새도 먹을 것이 위장에 어느 정도 쌓이니까 갑자기 뒤를 들고 하얀 똥을 쑥 내밀었다.

워낙 순식간이라 처음에 입에서 뭐가 튀어나온 줄 착각했는데 금세 내가 닦아주어야 할(어미는 다 먹는 단다.)똥과 오줌이란 걸 알았다.



그렇게 열심히 없는 귀한 파리를 찾아다 먹이면서 삼일 째 되는 날 아침, 출근해서 바로 상자를 열어보니 이미 그 새는 씨늘하게 죽어 있었다. 그것도 유난히 온 몸이 회색빛으로 변하고 윤기를 잃은 채였다. '모모'란 동화책에서 사람들의 시간을 훔쳐가는 시간도둑들이 모두 회색빛을 띠듯 주검들 역시 유난히 회색 톤이 강하다.

이런 저런 수많은 죽음과 맞닥뜨릴수록 더욱 더 깊어지는 건, 바로 생명 그 자체에 대한 경외심과 사랑이다. 보통 사람들은 생에서 무언가 꼭 깊은 의미를 찾아내려고 꺾꺾대기도 하고, 가끔 크고 작은 시련들로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느껴질 때면 생을 함부로 포기하는 일조차 벌어진다.

그렇지만 원초적인 삶(생명)에 몰입하는 동물들을 지켜보면서 또 이런 죽음의 허무함 들을 자주 대하면서 난 지극히 단순해져 버렸다. 삶이란 그저 이 빛나는 생명의 빛깔을 좀 더 오래토록 간직하고 싶은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것이라고. fin~ ♡

